

마태복음 8장 5-13절 말씀

①

0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
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06 이르되
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

07 이르시되
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

②

0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
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
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
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

0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ियो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
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
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

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
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
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
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

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
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
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

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
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

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
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

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